

독서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6학년

# 문학이 온다 성장 편 독서 워크북



강건후 · 문경은 엮음 | 이나래 그림




## ■ 책 소개

『문학이 온다』 시리즈는 현직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려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고전 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감상 수업’과 ‘질문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감상 수업’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작품을 읽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였고, ‘질문 수업’은 독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히 ‘성장 편’은 아이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전

 **국어 교과 |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보세요.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3) 『문학이 온다 : 성장 편』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왜 읽어야 할까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는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학이 온다』를 펴내며' 중에서

2. 윗글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써 보세요.

⇨

3. '성장'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 있나요? 작품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써 보세요.

⇨

## 독서 후


4.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본 결과, 『문학이 온다 : 성장 편』의 핵심적인 소재는 무엇이라고 짐작되나요?

⇨

5. 책의 목차를 읽고, 가장 먼저 읽어보고 싶은 문학 작품을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문학이 온다 : 성장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다.

왜냐하면,

 **책 속으로** ①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풀잎에도 상처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 정호승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가장 향기롭다

1. 윗글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풀잎’과 ‘꽃잎’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

2. 여러분은 ‘어려움 없이 산 사람’과 ‘상처를 이겨 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 보고 싶은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오늘이

※ 소설 「오늘이」에서 주인공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원천강에 가는 길을 여럿에게 물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가 만난 대상은 모두 길을 알려 주는 대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이에게 부탁합니다. 등장인물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오늘이는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고민	오늘이의 해결 방안
글 읽는 도령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외판집에서 글만 읽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글만 읽는 아가씨를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을 전하고, 짝을 맺어 주었다.



--	--	--



--	--	--



--	--	--



--	--	--

## 독서 후

### 💡 책 속으로 ③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동백꽃

※ 소설 「동백꽃」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뚝이 쥐였다.

①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 ①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나)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뺀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중략) 나는 대뜸 달려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꺾꽂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중략)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에서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 나는 비슬 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1. 소설 「동백꽃」에서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입니다. (가)의 밑줄 친 ①과 ②을 듣는 상대방의 심리는 각각 어떠했을지 추측해 써 보세요.

①을 듣는 ‘나’의 마음	
②을 듣는 점순이의 마음	

2. (나)에서 점순이는 ‘나’의 닭을 괴롭히며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이유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순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 독서 후

### 💡 책 속으로 ④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

※ 『문학이 온다 : 성장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아니, 뭐냐 저, 그게 아니고, 그래도 네 엄마는 형제들 중에 가장 인정이 많았어. 속 썩일 때도 있었지만 용돈 모아서 선물도 사다 주고 과수원 일하고 오면 등도 주물러 주고 애교도 부리고 하던 건 네 엄마였단다.”

엄마의 비밀이 드러나 버렸다. 그동안 나만 감쪽같이 속았다. 역시 얼른 어른이 돼야 한다. “할머니, 나도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어. 어디든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다 해 볼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암, 그래야지. 우리 예린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우리 예린이를 믿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보고 세상을 돌아다녀 보렴. 그런데 예린이, 사과는 오랫동안 충분히 익어야 달고 맛있단다. 햇빛도 맘껏 쬐고 별빛도 맘껏 받고 비도 맞고 바람도 받고 이슬도 먹고, 먹고…….”

(나) 마음의 고향 - 가지 않은 길

- 이시영

내 생애 그런 기쁜 길이 남아 있을까

중학 1학년,

새벽밥 일찍 먹고 한 손엔 책가방,

한 손엔 영어 단어장 들고

가름쟁이 콩밭 사잇길로 사잇길로 시오 리를

가로질러

읍내 중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에

함뼉 젖은 아랫도리가 모락모락 흰 김을 뿜으며 반짝이던,

간혹 거기까지 잘못 따라온 콩밭 이슬 머금은

작은 청개구리가 영롱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팔짝 튀어 달아나던,

내 생애 그런 기쁜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을까

1. (가)에서 예린이처럼 여러분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혹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걸었던 등굣길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먼 훗날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있을까요? ‘마음의 고향’이 될 추억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① 속마음과 반대로 하는 말

1.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먼 후일」을 읽고, 말하는 이(화자)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서 써 보고, 말하는 이(화자)의 실제 속마음은 무엇인지 추측해서 적어 보세요.

진달래꽃 -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

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먼 후일 -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잇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잇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밧기지 않아서 잇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잇고

먼 훗날 그때에 '잇었노라'

	진달래꽃	먼 후일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 쓰인 부분		
말하는 이(화자)의 실제 속마음		

2. 다음은 소설 「소나기」의 결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나기」의 소년 처럼 누군가와 이별을 해야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달래꽃」, 「먼 후일」의 말하는 이(화자)가 이별의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를 참고하여, 내가 만일 「소나기」의 소년이라면 소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써 보세요.

“글썸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 봤다드군. 지금 같애서는 윤 초시 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은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구…….”

⇨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② 순수한 열정은 존재할까

※ 『문학이 온다: 성장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막내의 담임 선생님은 마흔 남짓한 남자분이신데, 무슨 깊은 병환으로 입원을 하셔서 한 두어 달 쉬시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학교에서는 막내의 반 아이들을 이 반 저 반으로 나누어 붙였다. 그러니까 막내의 반은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아이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된 것이다. (중략)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 나오셔서 오실 때까지 우리 기숙지 말자 하며 서로서로 격려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운이 팽배해지자 이른바 간부였던 아이들은 자기네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몇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모였던 것이고, 그 기숙지 않을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야구 대회를 주최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연습은 참으로 피나는 것이었다. 배 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도 누구 하나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연습이 끝나면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검토했다. 그러노라면 어느새 하늘에 푸른 별이 떴다. / 그리하여 마침내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 반 저 반으로 헤어진 반 아이들은 예선부터 한 사람 빠짐없이 응원에 나섰다. 그 응원의 외침은 차라리 처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광의 도가니처럼 들끓던 결승에서 그만 패하고 만 것이다.

(나) 사랑 - 안도현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1. 윗글 (가)는 수필 「막내의 야구 방망이」의 주인공이 야구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순수한 열정이란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며 자유롭게 써 보세요.

⇨

2. (나)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매미가 우는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미의 사랑이 잊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은가요?

⇨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③ 내가 선택한 길

※ 다음 두 편의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고래를 위하여 - 정호승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①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나) 가지 않은 길 -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중략)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1. (가)의 밑줄 친 ①에서 '청년'은 마음속에 꿈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년처럼 어른이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

2. (나)에서 말하는 이(회자)가 갈림길에서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 독서 후

 **창의융합**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

※ 수필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십 미터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가서 숨을 고르다가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해 봄에 거름으로 쓸 분뇨를 모아 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 그럼에도 부룩하고 나는 돌을 딛고 자전거에 올라섰다.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나는 몸을 앞으로 흔들며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난생처음 봄을 맞는 장끼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리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어질어질한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삼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 온 비밀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본능에 맡겨라.

1. 윗글에서 주인공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

2.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명언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 헬렌 켈러
-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 아인슈타인
-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하는 것 자체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갖추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라.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은 ( )이다. 왜냐하면,

# 예시답안과 가이드

## ■ 독서 전

### 1. (예시답안)

- 인물 : 얼굴이 까맣게 탄 남자아이가 흰 얼굴의 여자아이에게 수줍게 노란색 꽃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다. 호감을 표현하는 풋풋한 소년의 모습과 책 제목에 ‘성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들이 사랑, 이별, 희망, 좌절 등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 배경 : 표지의 귀퉁이에는 ‘교과서 삼색 문학 읽기’라는 단어가 있다. 아마도 ‘성장’이라는 주제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 같다. 표지의 배경 전체는 노란색이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소년과 소녀, 꽃 이외에 별다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노란색은 이제 막 태어난 병아리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기다리는 유치원생들을 떠올리게도 하여 풋풋한 느낌이 들게 한다.

2. (예시답안) 문학 작품에는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고민들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예시답안) 이금희 아나운서가 쓴 「촌스러운 아나운서」라는 수필이다. 촌스러움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깨닫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4. (예시답안) 변화의 가능성, 자신에 대한 도전 등

5. (예시답안) 『문학이 온다 : 성장 편』에서 먼저 읽어보고 싶은 작품은 시 「고래를 위하여」이다.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포유류인데 바다에 적응해 살아간다는 점 때문에 신비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고래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지는 제목이다.

# 문학이 온다 성장편

##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1. (예시답안) 이 시에서 ‘풀잎’과 ‘꽃잎’은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당당히 땅 위에 굳세게 서 있는 존재이다. 말하는 이(화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고 있다.

2. (예시답안) 어려움 없이 산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싶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선택의 결과가 나의 예상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그 사람도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물어보고 싶다.

❖ 책 속으로 ②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오늘이

(예시답안)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고민	오늘이의 해결 방안
글 읽는 도령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외딴 집에서 글만 읽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글만 읽는 아가씨를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을 전하고, 짝을 맺어 주었다.



나무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까닭을 알고 싶어 한다.	맨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필 것이라고 한다.
----	---	---

# 예시답안과 가이드



뱀	다른 뱀들은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도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데, 자신의 여의주가 세 개나 있는데도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여의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나머지 두 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	---	---



글 읽는 아가씨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글만 읽는 이유를 궁금해 한다.	짜을 만나지 못해 오두막에서 글만 읽는 것이니, 자신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짜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	-------------------------------------	--



선녀	잘못을 저질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샘물을 다 퍼내야 하는 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어 고민하고 있다.	오늘이is 풀을 베어다 물통에 난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빈틈을 메웠다.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 물통으로 샘물을 퍼냈다.
----	---	--

## ❖ 책 속으로 ③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동백꽃

### 1. (예시답안)

㉠을 듣는 '나'의 마음	자신은 소작농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집 딸인데, 형편이 어려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 불쾌하고 화가 난다.
㉡을 듣는 점순이의 마음	'나'에게 용기를 내어 감자를 건냈는데 호의를 거절당한 것이 당황스럽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분한 느낌이 든다.

# 문학이 온다 성장편

2. (예시답안) 내가 점순이라면 좋아하는 친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대화를 많이 할 것이다. 점순이는 평소에 주인공 '나'와 인사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자신의 호감을 감자와 닭싸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라면 우선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걸려고 노력할 것 같다.

## ❖ 책 속으로 ④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

1. (예시답안)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지는 일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의 존재가 더 소중해지고 가치 있게 빛날 수 있을 것 같다.

2. (예시답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미술관이다. 나에게 '고향'이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가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미술관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편안해진다.

## ❖ 감상과 질문 ① 속마음과 반대로 하는 말

1. (예시답안)

	진달래꽃	먼 후일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 쓰인 부분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말하는 이(화자)의 실제 속마음	당신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 을 흘릴 것입니다.	먼훗날 그때도 나는 당신을 잊 지 못할 것이다.

2. (예시답안) 「진달래꽃」의 말하는 이(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가는 임의 발길에 꽃을 뿌리며 축복하겠다고 말하며 슬픔을 인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먼 후일」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 예시답안과 가이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 ❖ 감상과 질문 ② 순수한 열정은 존재할까

1. (예시답안) 순수한 열정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일제에 저항하고, 조선의 독립을 앞당기려 노력하셨던 독립 운동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헌신하면서도 '무소유'의 덕을 실천하려고 한 장기려 박사 등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분들의 예는 무수히 많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서 행복을 얻을 것이다.

2. (예시답안) 사랑이란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아끼는 마음이 들기는 힘들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게 될 것이다.

## ❖ 감상과 질문 ③ 내가 선택한 길

### 1. 답안 생략.

(가이드) 어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직업과 관련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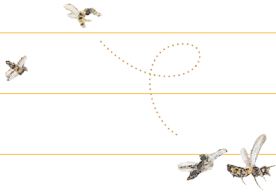
2. (예시답안) 2연에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는 표현이 있다. 적은 사람이 걸은 길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하는 이(화자)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걱정해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한다면, 미련이 남아 자신의 선택에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문학이 온다 성장편

## ❖ 창의융합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

1. (예시답안) 자전거를 스스로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우선 노력하자, 그래도 안 되거든 본능에 맡겨 보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자전거 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 본능이란 어떤 경험이나 학습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노력을 통해 기술을 다듬을 수 있겠지만, 도전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자신의 본능을 믿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나'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성공한 경험을 통해 이후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 타기, 그리고 사랑 등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2. (예시답안)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은 독서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나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수필에서 '나'는 자신이 친구 없이 무서운 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본다.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정이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작가의 말에서 교훈을 얻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 응진 주니어

값 14,000원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